‘한복문화 선도도시 전주’

시, 17·18일 전주동헌·경기전 광장서 한복문화주간 ‘전주한복오감’ 행사 개최

이번 주말 전주한옥마을에 가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복패션쇼도 관람할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전주동헌과 경기전 광장에서 한복문화주간 ‘전주한복오감’ 행사를 개최한다.

한복진흥센터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전주한복오감’ 행사에서는 지난해 10월 1차적으로 한복모델 선발대회와 한복토크쇼 등이 추진된데 이어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시민과 여행객들을 찾아간다.

메인행사인 한복 패션쇼를 비롯해 ▲랜선 한복입기 ▲한복장터 ▲한복 즉석사진 찍기 ▲한스타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한복패션쇼의 경우 지난 2019년 한복문화주간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전주패션협회(회장 최경은)가 운영을 맡았다. 17일 오후 3시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복 패션쇼와 시상식이 열리며, 18일 오후 6시에 전문 디자이너들의 품격 높은 한복 패션쇼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하되 MBC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전주동헌과 경기전 광장에서 한복문화주간 ‘전주한복오감’ 행사를 개최한다.

13개의 한복업체가 참여하는 한복장터 부스(17일)와 한복체험 부스(18일)도 운영된다. 한복체험 부스에서는 가야금·장구체험, 한지고무신, 한지브로치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느린 엽서 우체국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무료로 인화해갈 수 있는 ‘너를 찍다’ 프로그램과 전주역과 경기전 등 가상의 전주 배경과 한복의상 필터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한복 입은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랜선 한복입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한복을 입은 시민들은 경기전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주한복오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한복오감 홈페이지(hanbokohgam.kr)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한복오감’ 총감독을 맡은 황이슬 씨는 “지난해 10월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적절히 병행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한복문화 선도도시 전주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최경은 (사)전주패션협회장은 “전주시가 한복을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주만의 특색 있는 한복 패션쇼를 선보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복문화주간 행사는 전주가 한복의 선도도시로써 우리 시 전통문화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전주 한복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계해 한복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원예치료로 정서적 안정·마음 치유 돕는다

전주농기센터, 7월말까지 시민 40명 대상 원예치료 상담실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14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주 2회에 걸쳐 원예치료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원예치료 강사를 통한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취지가 있다.

원예치료 상담실에서는 ▲꽃바구니 만들기 ▲미니정원 꾸미기 ▲프리저브드 액자 만들기 ▲압화꿈타일 만들기 등을 진행해 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지난해 1인 1회로 참여를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1인 4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원예치료 상담실 참여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281-6716),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평일 주간 063-273-6995 / 평일 주·야간, 주말 1577-019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는 14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민주화 지지 모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주연대 참여단체 대표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미얀마 민주화 지지 모금 운동 동참해주세요”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 지지 모금 선포

전주지역의 종교, 시민 단체들이 군부 쿠데타로 탄압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모금에 들어갔다.

22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이하 전주연대)’는 14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민주화 지지 모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주연대 참여단체 대표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에서 전주연대는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참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단위들이 힘을 모은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는 시민 한분 한분이 참여하는 연대의 손길을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내밀고자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미얀마 군·경에 의한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과 학살로 쿠데타 이후 70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자 중에는 다수의 어린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라며 격분했다. 이어 “불복종운동을 진행했던 시민 중에는 주택이 철거되어 갈 곳을 잃기도 했으며, 의약품과 생필품이 부족하고 민주화운동 중 다쳐도 치료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전하면서, “부상 당하고 구금된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신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과 쿠데타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1980년 5월을 기억한다”며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민주화 투쟁에 있는 미얀마 시민들 홀로 그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손을 맞잡아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연대는 특히 “오늘부터 5월 말일까지 사단법인 아시아이주여성센터를 모금기관으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의 협력 활동에 나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아울러 “민주화를 향한 여정에 나선 미얀마 시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사회의 미얀마 민주화연대 활동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모금은 온라인 및 후원금, 재한미얀마인 물품 판매 및 모금 등으로 진행되며, 모여진 기금은 현지의 민주화운동 시민들에 대한 생활필수품 및 의약품, 기타 긴급 생계 지원 경비 등 인도적 지원에 우선 사용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 진로 탐색 ‘야미 프로젝트’ 운영

오송중 3학년 학생 18명 대상

전주시 야호학교는 14일과 21일 오송중학교 3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야미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전주시 야호학교는 14일과 21일 오송중학교 3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야미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야미 프로젝트’는 주제별 원탁회의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활동이다.

지난 7일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서는 김재원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내 꿈을 JOB아라’를 주제로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코로나19로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해 추진된다.

우선 학생들은 지역 내 진로·직업 기관을 탐색하고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진로 탐험 계획을 구상한다. 이후 ‘전주사람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제 기관탐방에 나선 뒤 전주의 특색 있는 직업군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찾아가는 원탁회의를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소속돼 있는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의 창의형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